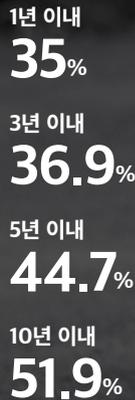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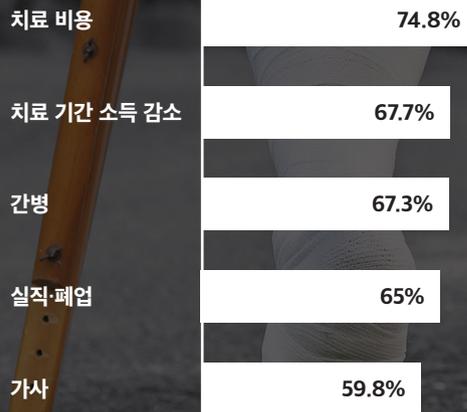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산업보건 이슈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병 경험



상병 발생 시 걱정은?



노동자가 원하는 상병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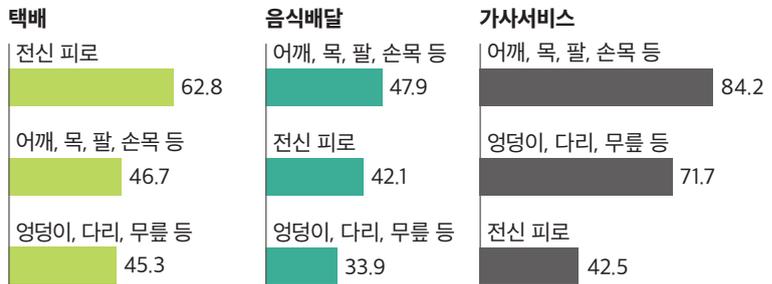
상병제도, 노동자의 삶과 소득 보장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부상을 경험했고 50%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했다. 아픈 노동자 중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그리고 실직·폐업 걱정 등을 꼽았다. 한편 상병 발생 시 필요한 제도로 치료비 지원 확대, 질병휴가, 상실된 소득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건강 사각지대

산재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정형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환경이 불안정하고 건강권이 취약한 상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택배, 퀵,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86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신 피로와 근골격계질환에 속하는 어깨, 목, 팔, 손목 등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았다.

플랫폼·프리랜서가 인지하는 건강상 문제는?(단위 : %)



출처 :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

안전과 건강 지키는 정책 울타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길 원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산재보험체계다. 그동안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

플랫폼·프리랜서가 원하는 정책은?(단위 : %)



출처 :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